

# 죽음의 섬



홍경안 역  
시시일각

스위스 태생의 상징주의 작가 아놀드 뵘클린(Arnold Böcklin)이 그린 '죽음의 섬'(Isle of the Dead, 1880) 중앙에는 명암의 극한 대비를 이루는 암벽의 섬이 있다. 흡사 거대한 무덤처럼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이 섬에는 영생과 애도를 의미하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음산한 기운을 내뿜은 채 빼곡하게 서 있고, 초월적 평온의 바다 위엔 작은 배 한척이 놓여 있다.

죽은 자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뱃사공 카론(Charon)일까. 뒷모습의 사공은 유령마냥 하얀색 천으로 온몸을 감싼 사람과 흰 포로 덮인 관을 싣고 섬을 향해 노를 젓고 있다. 섬은 깊고 깊은 죽음 이후의 세계. 육신의 아픔도 정신적 괴로움도 없다. 사공은 안식의 세계에 망자를 내려놓을 것이다.

'죽음의 섬'의 주제는 '죽음'이다.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뇌염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뵘클린의 자녀 14명 중 여덟 명이 전염병과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작가 본인도 열병과 뇌졸중에 걸려 사경을 헤매

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그는 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었다.

뵘클린 점차 죽음에 익숙해졌다.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해골이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묘사된 '자화상'(Self-Portrait, 1872)은 죽음을 안고 가야 할 존재로서의 자신을 표현한 작품이다.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성모를 그린 '피에타'(1885)에는 떠나보낸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비통함이 담겨 있다.

죽음은 자식을 잃은 후 심연에 들었던 그였기에 표현할 수 있는 세계였다. 그의 유력 후원자가 작업실을 방문한 후원래는 없었던 배와 여인, 그리고 흰 포로 덮인 관을 넣어달라고 했을 때에도 기꺼이 수락할 수 있었던 건 급성 감염 질환으로 남편을 먼저 보낸 그녀의 사연에 공감해서였다.

이처럼 그의 그림에는 죽음이 스며있다. 그리고 죽음과 마주하기로 결심한 이후 제작된 '죽음의 섬'은 많은 이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그중에는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와 히틀러(Adolf Hitler)도 있다.

히틀러는 뵘클린의 그림을 다수 소장할 만큼 그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1886년 까지 제작된 '죽음의 섬' 다섯 가지 버전

중 세 번째 버전(1883)을 소장하기까지 했다. 히틀러가 만난 적도 없는 뵘클린에게 폭 빠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화가가 되려 했던 젊은 시절의 꿈과 죽음과 영속성에 대한 집착, 나치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미지 조작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저 그랬던 무명의 화가를 일약 스타로 만든 '죽음의 섬'은 송고미를 완벽히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송고미는 인간이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한함, 거대한, 초월적인 힘과 맞닥뜨릴 때 발생한다. 자연이나 예술 작품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불안한 감정 등도 그중 일부다. 죽음 역시 예외는 아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Epicurus)의 사유처럼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멸의 욕망만 제거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뵘클린이 말년에 발표한 '생명의 섬'(Isle of Life, 1888)을 통해 죽음의 반대편에서 '생의 환희'를 찬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것이 비록 잘나에 불과할지라도. /미술평론가

# 긴 전쟁에 장사없다



나유리  
(금융부)

손자병법에 교지불여졸속(巧遲不如拙速)이란 말이 있다. 병법의 작전편에 나오는 용병술과 관련한 용어다. '교지'는 전쟁에서 교묘한 전략만 따지다가 때를 놓치는 것을 말하고, '졸속'은 전략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때를 놓치지 않고 속전속결하는 것을 말한다. 뛰어난지만 늦는 사람보다, 미흡해도 빠른사람이 낫다는 의미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않는 것 같다"며 "새로운 충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이

게임 이전의 정상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들에 의해 빠르게 정치시스템이 작동하고, 유통성 공급 대책 등으로 경제시스템이 운영되는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분위기는 한달 만에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최 권한대행도 현재 헌법재판관을 협의없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탄핵 압박이 거세진 상태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낮췄다. 주요 IB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한달전보다 0.1%포인트 낮은 1.7%로 전망했다. 정치적 문제가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최 권한대행이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된 것은 잘못이다. 이는 어쩌면 여야가 협의해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박탈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도 없이 보왔다. 여야가 합의하는 데 걸리는 긴 시간을,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이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려했을 것이다.

손자병법에서 교지불여졸속을 강조한 이유는 딱 하나다. 전쟁이 길어지면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 피해도 커질 수 있어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않는 것이다. 정치문제가 경제로 이어져 피해를 보는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다.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를 안정화 시킨 이후에 물어도 늦지 않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8일 (음 12월 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부부간에 다투어봤자 둘 다 손해. 48년생 탐구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60년생 넓은 마음과 아량이 필요. 72년생 남보다 나은 길을 가려면 피가 아니라 건강이 우선이다. 84년생 주변 사람의 조연으로 어려움을 극복.



37년생 걱정만 하고 해결은 못 한다. 49년생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61년생 문서거래는 잘 살펴야 한다. 73년생 밥이 보약이니 끼니 잘 챙겨먹도록. 85년생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새삼 이해된다.



38년생 물은 고이면 썩기 시작. 50년생 간벌의 차이로 좋은 기회를 놓친다. 62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나에게 오니 주의. 74년생 자신의 재주를 너무 과대평가 하지 않도록. 86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니 거절 것이 없다.



39년생 의외의 귀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 51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항상 준비하자. 63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75년생 앓느니 죽을 것 같은 사랑은 하지 않도록. 87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40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러서 돌아오니 이득이 많은 날. 52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수 있다. 64년생 번뇌가 많으니 명상을 추천. 76년생 통과 제리의 인연인 듯. 88년생 자신의 재능이 두드러지지 공부를 아끼지 마라.



41년생 노후대비는 젊어서부터 해야. 53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65년생 휴대폰 분실을 조심. 77년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지만, 내색을 안 할 뿐이다. 89년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42년생 힘들어도 다시 운동으로 권리를 시작하자. 5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66년생 부지런하거나 좋은 습관은 누구에게나 자신. 78년생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90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전진.



43년생 상대 탓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찾아라. 55년생 불처럼 뜨거운 기운이 구설수가 된다. 67년생 첫 만남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라. 79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 91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새벽 비가 내린다.



44년생 배우자가 의심되면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기도해보라. 56년생 젊어서 공부 부족해도 좋은 결과를 얻는다. 68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바로 내 고기이다. 80년생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사. 92년생 배우자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른다.



45년생 게으름을 청산하고 변화를. 57년생 신세 졌던 사람이 빛을 갈려 온다. 69년생 이빨 빠진 호랑이 심정을 알 것 같다. 81년생 남에게 친절할 것은 예의이지 비굴한 게 아님. 93년생 워런 버핏만이 아니라 작지만 성공할 인생길로 가보자.



46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58년생 민망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재 도전. 70년생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니 희망적. 82년생 정해진 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세상의 분명한 진리. 94년생 운명은 스스로가 갖고 태어난다.



47년생 실력을 발휘하고 인정도 받는다. 59년생 아프지 않는 것이 제일 행복. 71년생 비가 내려 대지를 적시니 내 마음이 풍요하다. 83년생 이성 문제로 좌고우면 하지 않도록 해야. 95년생 여름의 포도송이처럼 좋은 일만 잇기를 바라지 말 것.

# 김상회의四季

## 귀족의 탄생(2)



옛날엔 많은 부를 소유한 자가 신분을 살 수 있었고, 부와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 정략결혼 등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해왔다. 세계적으로 전근대적인 신분제도가 무너진 지 따져보면 채 백 년도 되지 않지만 무슨 왕가니 귀족이니 하는 개념이 유럽에는 아직도 이어진다. 조선 시대 말기에 양반첩을 돈을 주고 산 얘기가 술하게 보인다.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를 두고 공주님, 왕자님 하는 호칭을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높은 신분에 대해 동경을 느낄 수가 있다. 시민혁명으로 왕족과 귀족들을 끌어내린 전력이 있다 해도 신분 상승에 욕구는 본능적이다. 근세가 들어 제국주의가 팽배하면서 유럽의 귀족들은 과거의 부와 명예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 틈새를 밀고 들어온 것은 신흥 부자들이었다. 권위주의 귀족을 끌어내리려 하면서도 속마음은 동경했다. 자녀에게만은 '귀족'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고 싶어 안달이었다. 방법은 귀족들과의 결혼이다. 몇 년 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영국의 '다운튼 애비'라는 드라마 시리즈에서도 미국 뉴욕의 신흥부자집 딸이 영국 런던에 건너가 백작 가문의 자제와 결혼한다. 당시 영지가 넘어갈 지경에 처했던 백작가는 신부의 지참금 덕택에 위기를 넘긴다. 정경유착도 이러한 공식 아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드라마 내에서의 백작 부부는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서서히 몰락해가는 유럽 귀족들의 보편적 실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서양의 귀족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고 불리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한다. 양반입네 하면서 명분과 체면만 중요시하는 위선적인 면은 달해 보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8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9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2			9	3				8
			6			9		
	5			1	8			
8		4		9				2
		5	4		1	8		
9	3			2		6		1
			8	4				6
		7			6			
5			2		9			7

7	1	3	6			4	9	
3		9			1			
	6				7	9		
1				3				
4			7	2				1
			5					9
		2	5				1	
			4			5		6
2	7			6	1	8	4	